제주도

모니터에 보이는 풍경은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입니다.

여러분을 마주 바라보는 이들은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방랑하며 여러 곳을 여행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으로 말하자면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순례의 숭고한 의미와는 달리 관광객의 삶은 총체적 목적이 배제된 파편화된 육감적 체험의 연속이자 영광의 세속화된 형태입니다. Life is a fragmented sequence of sensual experiences with no totalizing aim.이들에겐 확고함이 없어 자칫 신념이 결여된 떠돌이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신념의 위치가 다를 뿐 입니다. 이들은 진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거나, 진실한 곳은 어딘가 먼 곳, 멀리 떨어진 시간에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진리를 파악한 채 개인의 가치를 세상의 중심에 놓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는 이들이 꿈꾸던 곳이자 환상의 공간입니다. 관광지는 관광객의 거울입니다. 관광지가 독립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관광객의 이기적인 거울 비추기 때문이며 관광지는 관광객에 의해 존재의 의미를 얻는 타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지는 여전히 꿈의 장소입니다. 실제의 장소가 꿈의 장소로 변하는 것은 관광객의 잦은 방문, 그들이 가지고 온 태도에 의해 가능하며, 꿈의 장소는 또 다른 의미를 발산하는 초현실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순환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관광객이 더 이상 그 장소를 찾지 않게 되어 한적한 곳이 되었을 때 종결되지만 그렇다고 그 장소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미덕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은 한적한 곳을 버리고 - 순례자가 그러했듯이 - 또 다른 신세계를 갈망합니다. 언젠가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버림을 받을 겁니다. 관광지는 무기력하고 고독합니다. 이러한 고독은 타인을 맞는 새로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독은 혹시 타인과 친해 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